

# 尙州鄉校의 配置形式 變遷에 관한 연구

鄭明燮

(상주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趙泳鈺

(대경대학 건축리모델링과 부교수, 공학박사)

주제어 : 상주, 향교, 배치형식, 변천과정, 대성전, 명륜당, 루, 전당후재형

## 1. 서론

상주향교는 창건 연대를 10C까지 올려볼 수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雄州巨牧의 大邑이었던 상주의 향교는 현재 大設位<sup>1)</sup> 향

교이다. 대성전<sup>2)</sup>과 東·西廡가 대설위 향교답게 규모가 크며 그 면모를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樓化한 반층층 형태의 明倫堂은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또 명륜당 뒤편에 東·西齋를 앉힌 前堂後齋形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흔치 않은 배치형식이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상주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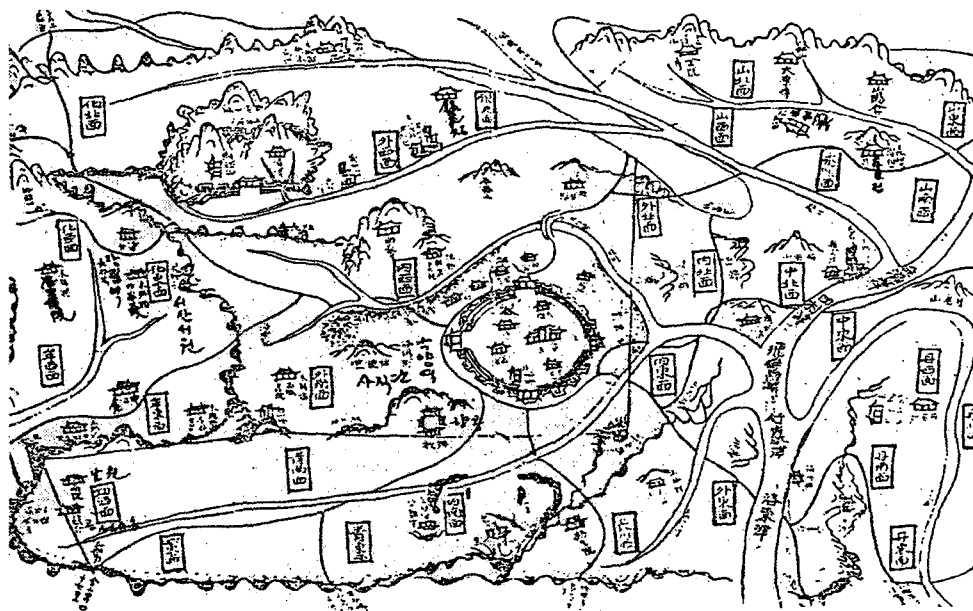


그림 1. 상주목지도

1) 각 지방의 행정 중심지인 界守官 및 州·府·牧·大都護府에 세워진 향교에 취해진 設位 형식

2) 대성전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155호로 지정되어 있음

표 1. 건축연혁과 관련기록

연대	내용	비고
1247년(고종 34)	崔滋 補閑集에 상주향교 관련 최초 기록 출현	추정 창건 연대(1247년 이전)
1343년(충숙 1)	安軸 謹齋集에 “州學이 황폐해졌다”	
1430년(세종 12)	牧使 曹致가 南樓 건립	
1486년(세종 17)	牧使 姜龜孫이 聖殿(3칸)과 東齋(5칸)·樓(5칸)를 크게 重修, 講堂에서 儒生들의 禮를 받음	明倫堂(講堂) 존재
1517년(중종 12)	觀察使 金安國이 향교를 순시하고 小學을 권장	
1559년(명종 14)	金就文 牧使가 향교를 重修하고 大設位로 승격시켰음	大成殿을 5칸, 東·西廡를 10칸으로 확장
1581년(선조 14)	柳永吉 牧使가 聖廟(大成殿)을 重創하고 처음으로 鑪祭器를 만들어 釋尊에 사용했음	
1592년(선조 25)	燒失	聖殿만 일부 훼손되고 나머지는 완전소실
1607년(선조 40)	金庭陞 牧使가 明倫堂을 重建	樓化 明倫堂 건립
1612년(광해 4)	牧使 韓述이 東·西廡와 蓮堂을 重建	蓮堂 존재
1617년(광해 9)	丁好善 牧使가 임란으로 소실된 향교를 重建하였고 이때 “重楹疊拱五架”의 규모와 구조로 완비했음	향교 : 동·서재를 지칭 大成殿 : 重楹疊拱五架 규모
1631년(인조 9)	柳恒 牧使가 東西廡와 蓮堂을 重修	
1731년(영조 7)	趙顯命 道伯이 순시 때 州內 선비를 明倫堂에 모아 대학을 강론했음	
1824년(순조 24)	重修	대상 건물은 알 수 없음
1832년(순조 32)	兪秉柱 牧使가 士林과 협력하여 明倫堂을 重修	
1841년(헌종 7)	重修	대상 건물은 알 수 없음
1910년	朴海齡 郡守가 重修	대상 건물은 알 수 없음
1948년	東·西廡 위패를 땅에 묻고 尙州高等公民學校 교실로 改造하여 사용	
1949년	大成殿을 尙州高等公民學校 교실로 사용	
1951년	6.25 전란 때 훼손된 大成殿을 補修하고 그 해에 설립된 南山中學校가 東·西廡를 改造하여 教室로, 大成殿은 강당으로 사용	東齋 : 향교 우측 담장 밖 언덕으로 이진 西齋 : 완전 소실(1950년) 南山中學校 : 尙州高等公民學校 후신
1952년	大成殿을 補修하고 五聖位 복구를 하여 모셨음	
1955년	太平樓를 향교 내로 移建	太平樓(1807년) : 尙州牧 官衙 건물 중 하나로 향교 앞 獨山에 있었음
1961년	明倫堂이 南山中學校 教室로 사용되다가 소실되어 그 자리에다 학교 教室을 지음	明倫堂 소실
1966년	大成殿 重修, 우리나라 18賢과 宋나라 2賢의 위패를 만들어 도합 25賢의 위패를 大成殿에 안치	
1974년	大成殿 기단 및 前面 석축 보수	
1975년	文化公報部가 지정 문화재 이외 문화재 제53호로 지정	
1977년	大成殿 기단 補修, 後便 석축 및 보호철책 시설	
1982년	慶尙北道가 有形文化財 제155호로 지정	
1985년	大成殿과 西廡 지붕 補修(연목 이상 解體 補修)	
1987년	東廡 번외 補修(부식 연목 교체) 및 반자 解體 補修	
1989년	東西廡 벽체 및 창호, 기둥 등바리·드잡이 補修, 內三門 新築	
1990년	明倫堂 復原, 東齋 移建	동재 이진 : 1951년 이전한 건물을 그대로 두고 같은 규모로 신축했음
1992년	西齋 復原	태평루를 만산동 임란북천전적지로 이진(1991.12)
1994년	庫直舍 移建	
1995년	外三門 新築	
1997년	化粧室 改築	
1998년	大成殿 내부바닥 및 기단 전돌 깔기, 담장 補修	

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비중이 큰 건축문화재로 들 수 있다.

약900년의 역사를 지닌 향교는 유교 건축의 대표적 유적으로 현재 남한에 230여 개소가 산재해 있다. 오랜 역사만큼 향교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해 왔다. 상주향교 역시 창건 이후 수 차례의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이런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살피지 않고 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아니라 개개의 건물을 세밀히 살펴본 경우도 드물다. 때문에 향교 건축의 시기별 변천과정과 그 특성이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다소간 혼선을 빚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상주향교에 대한 문헌 및 관계자료<sup>3)</sup>를 바탕으로 건축연혁과 함께 배치형식을 중심으로 그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고찰했다. 이는 첫째, 상주향교의 실증적 자료에 의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하며, 둘째, 향교 건축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세부적 체계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한편 大邑에 세워진 상주향교의 건축 양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상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건축 특징 규명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된다.

## 2. 상주 향교의 입지 및 창건 연대

### 2-1. 입지

상주향교는 현재 상주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sup>4)</sup>에 있는 南山 九月峯의 산자락에 背山하여 남향으로 앉아 있다. 지금의 위치는 창건 당시의 자리로 알려져 오고 있다.<sup>5)</sup>

향교의 위치는 한 고을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며, 조선시대 대부분의 邑城은 전통적인 도시관에 따라 읍성 계획이 이루어진다. 읍성 계획은 한성의 도시계획에 반영된 중국 ‘周禮考工記’의 “左廟右社”의 배치 원리가 적용된다. 지방 읍성에서는 宗廟 대신 文廟 즉 향교를 설치하여 그 예를 대신했다. 비 건축물인 社稷壇은 모두 서쪽에 두어 右社의 원리를 충실히 지키고 있으나, 향교는 지방에서 크고 중요한 건축물이어서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위치와 거리가 일정치 않았다.<sup>6)</sup> 향교의 입지는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읍성의 동(35.2%)·북(29.8%)·서(18%)·남(6.4%)쪽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sup>7)</sup> 읍성에서의 거리는 1~3리 정도로 가깝고 성안에 두는 경우도 있다.<sup>8)</sup>

상주 향교는 尙州牧 邑誌(1832년)에 게재된 尙州牧地圖를 보면 향교가 邑城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읍성에서의 거리는 尙山誌<sup>9)</sup>의 “鄉校在州南五里有”라는 기록을 통해서 읍성에서 5리 정도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주 향교는 위치상으로는 혼치않은 서편에 있으며, 거리상으로는 다소 먼 거리에 있다. 한편 서쪽에 위치한 향교들 중 상당수는 社稷에 대한 제사를 겸할 수 있도록 社稷壇 가까운 곳에 자리 잡게 된다. 이는 향교가 사직과 더불어 도시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다.<sup>10)</sup> 상주 향교도 이를 입증하듯 앞의 尙州牧地圖를 보면 향교 위쪽에 사직단이 자리 잡고 있다.

향교 입지의 지형적 특징은 그 도읍의 주변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나고 한적한 곳에 背山하고 그 전면으로는 들녘이 펼쳐진다. 지형은 크게 평지와 경사지형으로 구분되는데, 경사지가 전체 향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상주향교가 자리한 곳은 산자락의 경사지로 여느 향교처럼 앞으로는 트여진 밭과 그 너머 넓은 들녘이 바라보이고 있다.

3) 상주향교에 대한 자료 고찰은 옛 것은 물론 최근의 각종 책자에 이르는 문헌·기문·논문·보수 기록 등을 세밀히 살펴보고 이와 함께 이루어진 관계자와의 수차 면담을 통해 얻어진 내용들을 종합 분석했다.

4) 상주시 신봉동 203-1번지

5) 尙州誌(1989, p122)에 “尙州鄉校는 원래 南山 九月峯 북쪽에 있었는데 중년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고 전하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의 원전을 확인 할 수 없다. 또 九月峯 북쪽은 급경사지로 향교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옛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6) 조영화, 향교건축의 루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논, 1995, p.58.

7) 김지민, 향교건축의 조영규범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논, 1992, p.91.

8) 조영화, 앞논문, p.58.

9) 尙山誌는 1617년(광해 9)에 尙山舊誌의 原 初本을, 1749년(영조 25)에 續編을 내고 1832년(순조 32)에 增補·改編하고 1928년에 增補 修撰한 상주의 鄉土史記이다.

10) 安義鄉校, <校宮修理祭服改備社畚併置記>(1883)“邑之所以爲邑 以基有社稷鄉校也”-조영화, 앞논문, p.59.

## 2-2. 창건 연대

지금까지 상주향교의 창건 연대는 1426년(세종 8)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대와 관련한 기록을 尙山誌의 “鄉校在州南五里有南樓宣德初判牧曹致建洪汝方有記”<sup>11)</sup>라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록 중 “宣德(1426~35)初”를 1426년으로 보고 이를 지금껏 창건 연대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州의 남쪽 5리에 鄉校가 있으니 宣德 初에 判牧 曹致<sup>12)</sup>가 南樓를 세웠으며 洪汝方<sup>13)</sup>이 기문을 썼다”로 해석된다. 즉 判牧 曹致가 재임하던 宣德 초기(1430년경) 기존의 향교에 새로이 南樓를 건립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상주향교의 창건 연대는 1430년 이전으로 올려 보아야 한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록을 尙州牧使를 지낸 崔滋<sup>14)</sup>의 補閑集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기록<sup>15)</sup>에 향교의 존재를 엿 보게 하는 유생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주 향교의 창건 시기가 1247년(고려 고종 34) 이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 향교가 이미 고려 成宗代(960~997)에 3京 12牧에 설치되었고 그 후 향학 장학책에 힘입어 꾸준히 향교가 설립되었다는<sup>16)</sup> 향교 창립 역사가 고려조 尙州牧의 향교 설립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 3. 상주향교 배치형식

지금의 상주향교는 산자락의 경사지를 3단으로 정지한 후 맨 앞쪽부터 외삼문과 과정적 공간, 講學空間, 祭享空間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과정적공간과 강학공간과의 단차는 2m 정도로 크지 않으나 강학공간과 제향공간과는 그 차이가 5m 정도로 공간적 위계가 뚜렷하다. 외삼문·명륜당·내삼문·대성전이 일축선상에 놓여 있으며, 고직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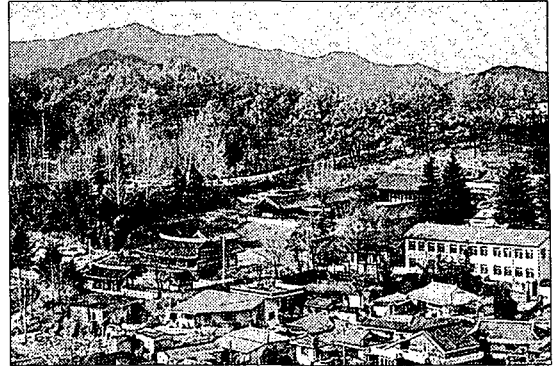


그림 2. 상주향교 전경

동재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 강학공간은 명륜당을 앞에 두고 양재를 뒤편에 둔 前堂後齋形으로 구성하고, 제향공간은 양무를 앞에 둔 대성전을 높게 쌓은 기단 위에 놓아 그 위상을 높였다.

상주향교의 이러한 배치형식은 1995년 외삼문의 건립을 끝으로 정비된 근년의 모습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주향교는 창건 이후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축연혁과 관련기록 중에서 배치형식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3-1. 1단계(창건 ~ 1429년)

이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관련 기록이 없어 구성 건축물과 배치형식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향교 제도과 1430년의 南樓 건립 그리고 1486년의 중수 기록을 통해 이 단계의 구성 건물과 그 배치형식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고려조와 조선 초기까지의 향교에서는 한 건물 또는 한 울타리 안에서 祭享과 講學的 기능이 함께하는 “廟學同宮”의 제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7)</sup> 상주향교도 廟學同宮의 제도에 따라 어느 한 형식을 취했으리라 생각한다. 1430년의 남루 건립은 상주향교가 성전과 떨어진 강학시설을 두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1429년에 鄭以攄가 쓴 陰竹縣鄉校 記文에 나타난 “3칸의 대성전을 건립하고 그 앞의 좌우에 각 5칸인 동·서무와 함께 남쪽에 3칸의 누각을 두었다”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당시 향교에서의 樓는 대개의 경우 대성전 앞쪽 좌·우에 강학시설이 정렬된 상태에서 건립됐

11) 김자상 역, 「尙山誌」, 대남인쇄소, 1984.

12) 判牧 曹致는 1430년에 취임하여 1431년에 이임했다.

13) 1428년(세종 10)에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했음.

14) 목사 취임 연도는 1242년이며, 이임 연도는 알 수 없다.

15) “丁未年(1247) 봄에는 명을 받들고 나아가 東南路로 出鎮하고 上洛(尙州)을 순력하였는데, 목사를 비롯하여 鄉校의 諸生에 이르기까지 歌詩와 引啓를 바치는데 나란히 나와서 길을 꼭 메꾸었다. 나이가 일흔이나 여든 살 남짓한 네 노인이 尙原四老라 칭하며 활막한 引 繩 絶句 詩 네 수를 바치었다.” (尙原四老 : 尙州의 성명 미상 네 노인)

16) 姜大敏, 「韓國의 鄉校研究」,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p.19.

17) 박찬수, 고려시대의 향교, 고려대 석사, 1982. p.20

기 때문이다. 묘학동궁 체제 당시의 강학시설은 동·서무 또는 동·서재가 그 역할을 했다. 상주향교의 강학시설은 1486년 동재를 중수했다는 기록과 동·서무에 관련한 내용이 1559년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동·서재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주향교는 樓가 건립되기 이전에는 성전 앞의 좌·우에 동·서재를 대칭으로 배치한 묘학동궁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런 모

했음을 엿 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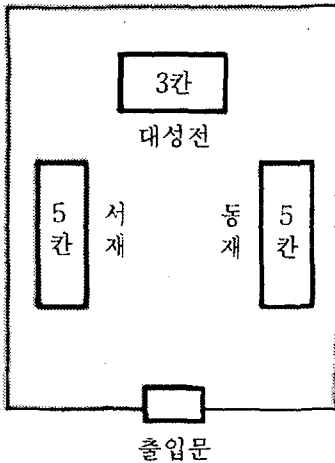


그림 3. 1단계 추정 배치형식(창건~1429년)

습이 창건 당시부터 갖추어진 것인지 후대에 변화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한편 향교건축은 강한 영역성을 갖기 때문에 건물 주위에는 방형의 담장을 두르고 전면 중앙에 출입문을 내어 그 영역을 명료히 한 것으로 생각된다.

3-2. 2단계(1430년 ~ 1485년)

1430년은 牧使 曹致가 남루를 처음 건립한 해이다. 기록으로 보아 남루는 1단계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성전과 그 앞 좌·우의 동·서재 배치 구조에 새로운 구성요소로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 남루의 위치는 전면의 출입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놓아 성전과 일축선을 이루면서 강한 구심점을 갖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陰竹縣鄕校記文과 함께 15C 때 향교에 루가 가장 많이 건립되었으며, 또 향교의 최전성기로 배치유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됐던 시기임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sup>18)</sup> 건축적으로 규모가 큰 樓를 건립했음은 그 당시 大邑에 있던 상주향교의 경제적 기반이 튼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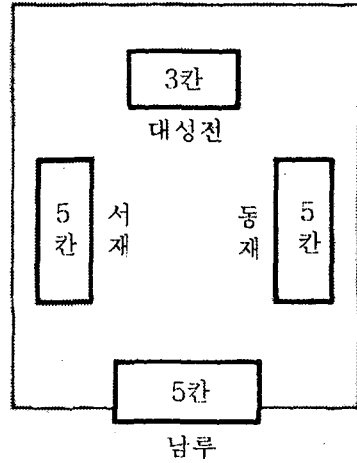


그림 4. 2단계 추정 배치형식(1430~?)

3-3. 3단계(1486년 ~ 임란 전)

이 단계는 상주 牧使 姜龜孫<sup>19)</sup>이 聖殿과 齋樓를 크게 중수한 때로부터 향교가 큰 피해를 입게 된 임란 전까지의 모습에 속한다. 1486년 중수 당시 洪貴達 이 쓴 기문<sup>20)</sup> 내용 중의 “謁先聖先師坐講堂受諸生禮畢”에서 언급된 講堂은 명륜당을 뜻한다. 이를 통해 1486년 중수 당시에 2단계의 구성건물과 함께 명륜당이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명륜당의 존재는 이 단계의 구성 건물과 배치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런 변화는 15C 중반 때 명륜당 건립이 일반화되고 향교 배치가 정형화되던<sup>21)</sup> 시기라는 역사적 사실과 1559년에 상주향교가 “대설위로 승격”되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배치의 정형은 聖殿과 동·서무의 제향공간과 명륜당과 동·서재의 강학공간이 각기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大都護府였던 강릉의 향교가 1486년 성전과 동·서무의 문묘 일곽을 짓고 그 다음해에 강학당과 동·서재의 강학

18) 조영화, 앞논문, p.37.

19) 1486년에 취임하여 그해에 이임했음.

20) ---謹按州之鄕校經營歲久聖殿三間樓五間棟撓而撰折雨漏風泄赤白漫漶東齋五間堂構而已未有窓壁外如欄牆亦皆缺衿抱疎欄將無以安先聖而處師生今牧使公莅政之初首謁先聖先師坐講堂受諸生禮畢乃周視殿堂齋舍曰噫有是哉如是而苟不能有爲是孤--- (김자상 역, 『商山誌』, 대남인쇄소, p.119. 1984.)

21) 조영화, 앞논문, p.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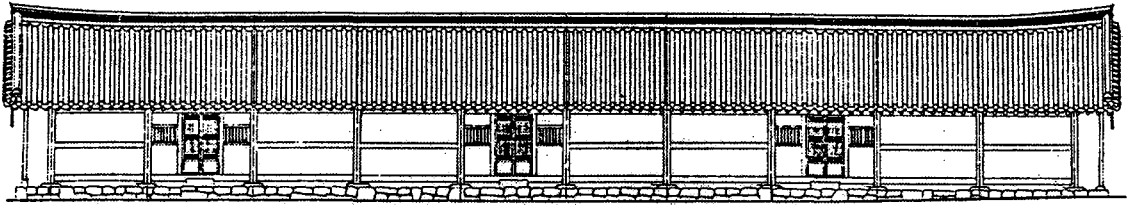


그림 6. 동무 정면도

공간을 비롯한 전사청·제기고 등을 건립한 것<sup>22)</sup>에서 보듯이, 상주와 같은 巨敎은 우선적으로 당시의 제도적 규범에 따라 배치체제를 제대로 갖추었으리라 짐작된다. 경사지형에 자리 잡은 상주향

치에 따라 前堂後齋와 前齋後堂의 두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1486년 당시는 지금과 달리 前齋後堂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누각(남루)은 그 기능<sup>23)</sup>에 따른 관습적 규범에 의해 향교의 맨 앞쪽에 두게 됨으로 자연히 명륜당이 그 뒤편에 떨어져 자리 잡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남루를 향교의 맨 앞쪽으로 옮기고 그 뒤편에 동·서재를 좌·우로 이건 배치했으며, 또 남루와 동·서재의 옛 자리에는 각기 내삼문과 동·서무를, 내삼문 바로 앞쪽 즉 옮긴 동·서재 뒤편에는 명륜당을 신축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3단계의 배치는 남루·명륜당·내삼문·성전을 일직선상에 앞한 前學後廟의 前齋後堂 형식으로 볼 수 있겠다. 이 단계에서 나타난 명륜당과 동·서무의 신축, 누각 이건 등의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洪貴達이 쓴 기문을 통해 명륜당과 동·서무가 1486년 이전에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3단계의 배치형식은 그 시기를 알 수 없을 뿐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이미 형성된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동·서무의 건립 시기와 최초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1559년 대설위로 승격될 때 그 제도 규범에 따라 지금과 같은 규모(10칸)를 갖추었으리라 추정된다. 대성전도 이 때 3칸에서 5칸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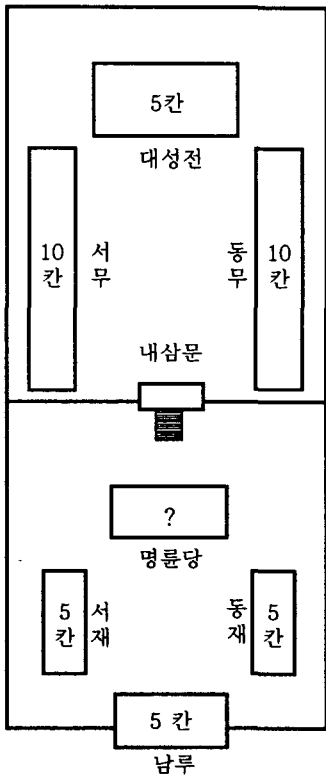


그림 5. 3단계 추정 배치형식(1486~임란전)

교는 공간의 위계성에 부합되게 제향공간을 맨 높은 곳에 앉히고 그 아래쪽에 강학공간을 놓는 경사지 배치방식에 따라 前學後廟 형식을 취했으리라 생각된다. 또 前學後廟 체제에서 명륜당의 위

3-4. 4단계(임란 후~1947년)

이 단계는 壬亂으로 인해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물들을 중건하여 새로이 단장한 후 6.25동란으로 또다시 흐트러지기 전까지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향교들이 그랬듯이 상주향교도 임란 때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그 이후의 몇 가지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소실된

22) 김지민, 향교건축의 조영규범에 관한 연구(단국대 박사, 1992, p. 126)에서 재인용

23) 누각은 그 기능상 조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쪽에 건물을 두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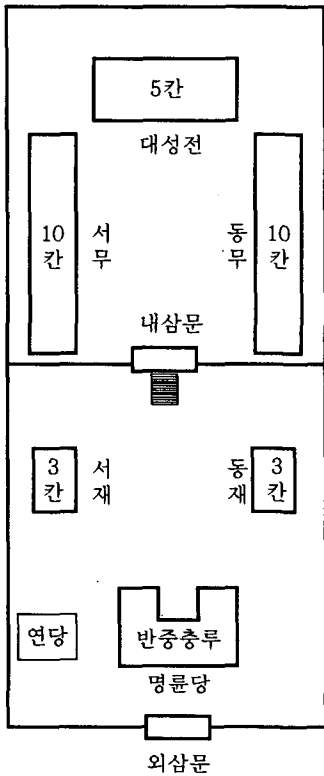


그림 7. 4단계 추정 배치형식(임란후~1947년)

건물들은 보통 4~5년 이내에 바로 중건하여 그 기능을 회복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는 20~30년이 걸리기도 한다.<sup>24)</sup> 이에 따라 우선 임란 이후 1631년까지의 기록을 보면 명륜당(1607년), 동·서무와 蓮堂(1612년), 대성전(1617년) 순으로의 중건과 동·서무 및 蓮堂 중수(1631년)가 이루어졌으며, 남루와 동·서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1617년에 “丁好善 牧使가 임란 때 소실된 향교를 중건하고…”라 하였는데 여기서 향교라는 명칭은 좁은 뜻으로 강학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10년 전에 명륜당을 중건하였기 때문에 강학공간은 동·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대성전은 향교 건축에 있어 그 위계가 가장 높은 건물로 이를 마지막으로 중건하고 있음은 임란 때 대성전은 일부만 훼손되었음을 읽게 한다. 남

루는 1631년 이후의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란 때 완전 소실된 후 그 자취를 감추었음을 알 수 있다. 동·서재는 1607년 이후 기록이 나타나지 않다가 1990년에 동재를 이천하고 1992년에 서재를 신축했다. 이들 중 동재는 남산중학교 설립(1951년)시에 향교 우측 담장 밖으로 이천했으며<sup>25)</sup>,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다. 1990년의 동재 이천은 방치됐던 동재가 너무 심하게 훼손<sup>26)</sup>되어 다시 경내로 옮기지 못하고 현재의 자리에 이천(1951년)했던 건물과 같은 규모(3칸)로 다시 지었다. 창건 당시 5칸이던 동재가 3칸인 것으로 보아 창건시의 건물은 임란 때 소실되고 그 후에 중건되었을 때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재는 동재와 달리 1992년 신축 이전의 기록이 없어 그 존재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유교적 질서체계를 최대로 준용한 향교의 건축적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서재도 동재와 같이 존재했으리라 짐작된다. 이처럼 동재와 서재가 여러 측면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규모가 축소된 것은 16C 말엽부터 향교의 강학기능이 쇠퇴해지고 제례기능만 남았던 역사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후기 향교의 강학기능 약화는 養士齋라는 다른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영·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 건립이 된다. 양사재는 향교 내 또는 그 주변에 건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27)</sup>. 상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양사재의 위치는 언급되지 않지만 그 존재는 언급<sup>28)</sup>되어 조선후기 향교건축의 특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당은 이 시기에 처음 언급된 구성요소이지만 1612년과 1631년에 각기 중건과 중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미 이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연당이 언제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명륜당 좌측의 일부분 지반이 옛부터 유일하게 다른 곳보다 연약하고 습하여 연못이 있었으리라는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

25) 현 상주향교 총무장의 강경모씨와 면담

26) 심한 변형으로 인해 1990년 제 위치로 이천 되지 못한 원래의 동재는 1999년 화재를 입은 후 지붕 등을 보수했다.

27) 조영화, 조선후기 양사재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2000. 12)에 전반적인 내용이 실려 있다.

28) 校院節目牌(1889)에 “2년에 한번씩 양사재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24) 김지민, 앞논문, p. 38.

다. 상주향교 總務掌議 강경모씨는 현재의 습지에 연당이 있었으며, 연당의 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배수되는 것이 원칙으로 근년까지도 동쪽 담 밖에 흘러나온 물이 고였던 웅덩이 있었다 한다. 우리나라 향교들 중에서 연당이 현존하고 있는 곳은 5개소로 그 위치와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북 : 비안(명륜당 전면, 방형), 전남 : 구례(외삼문 밖 전면, 방형)·영암(외삼문 밖 전면, 방형)·진도(명륜당 전면 좌측, 방형), 전북 : 장수(명륜당 좌측, 방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임란 때 파괴해진 건물들 중 남루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건했음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재건된 건물들 중 명륜당이 지금과 같은 반중층의 樓化 한 건물 형태로 바뀌었으며, 그 위치는 남루가 있었던 곳을 선행연구<sup>29)</sup>가 밝히고 있다. 명륜당 앞쪽에는 외삼문을 두어 강학공간이 외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4단계의 배치형식은 3단계처럼 前學後廟이나 강학공간이 前齋後堂에서 前堂後齋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음에 루를 건립하였다가 주로 병란에 소실된 후 루를 생략하고 樓化한 명륜당을 건립한 예는 강릉, 옥천, 울진향교에서도 볼 수 있다. 루화한 명륜당은 현재 전국적으로 24개소 향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 중 경북에는 4개소가 있다. 이는 상주향교의 두드러진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 3-5. 5단계(1948년~현재)

조선후기에 들어서 향교는 강학기능이 약해지고 단순히 제례를 지내는 것으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1948년 당시의 儒道會長 金昌淑이 우리나라의 문묘에 孔子·4聖·程頤·朱熹 이외의 설위는 모두 철폐하고 우리나라 18賢만을 배향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동·서무에 모신 18賢의 위패를 대성전으로 옮기게 되어 동·서무에서의 제향기능은 사라지게 되고 대성전에서만 그 기능이 이루어 지게 된다.

상주향교에서 이 단계는 이런 역사적 환경 속

에 그 나름대로 지켜져 오다가 1948년부터 근대 학교의 교실 등으로 사용되고, 또 6.25동란으로 다시 흐트러진 모습을 일신한 현재까지를 살펴보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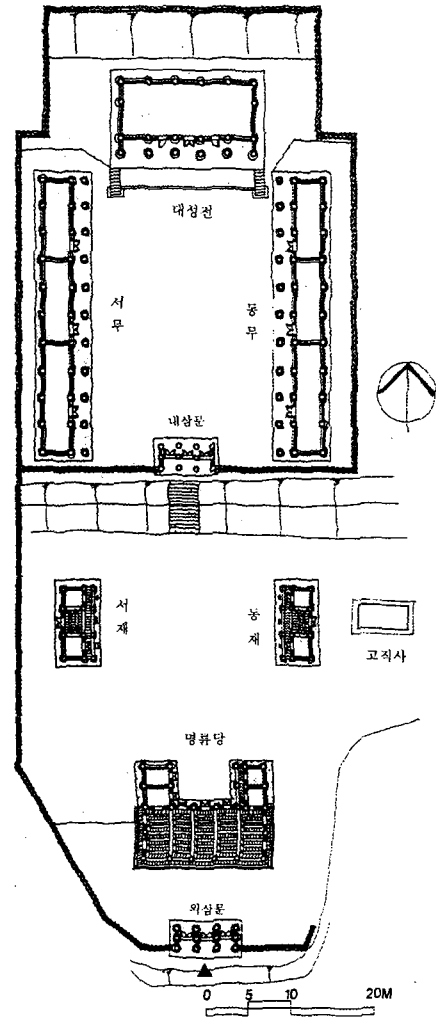


그림 8. 5단계 배치형식(1948~현재)

다.

기록만 두고 볼 때 상주향교는 4단계의 모습을 갖춘 이후 향교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져왔으며, 또 1948년과 1949년에 각기 동·서무와 대성전을 개조하여 상주고등공민학교 교실로 사용했지만 6.25동란 전까지는 배치 상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25 동란으로 상주향교는 또 다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동란 이후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서재는 완전히 소실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훼손

29) 조영화의 앞 논문(p.91). 또한, 이 연구에서 상주향교의 명륜당이 루화된 연대를 1618년(p. 93의 표 5-2)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해는 대성전을 중건했으며, 명륜당은 그 보다 앞선 1607년에 중건되었다. 따라서 명륜당이 루화된 연대를 1607년으로 보아야 한다.



손된 것으로 보여 진다. 1951년 동란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들 중에서 동·서무와 대성전은 보수하여 그 해에 설립된 남산중학교(상주고등공민학교 후신)의 교실과 강당으로 사용했으며, 동재는 향교의 우측 담장 밖 언덕으로 이 건 했다. 1955년에는 향교 앞쪽 獨山에 있던 太平樓를 소실된 서재 자리에 옮겨왔으며, 1961년에는 명륜당이 소실됐다. 이렇듯 6.25 동란 때 피해를 입은 건물들을 4단계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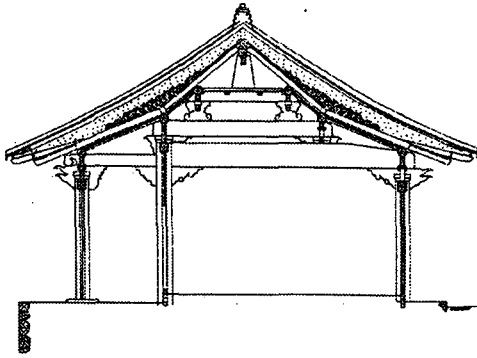


그림 9. 대성전 단면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고 타 용도로 이용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흐트러져 있었다. 이런 모습이 조금씩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대성전의 중수부터로 1987년까지는 대성전과 동·서무가 어느 정도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 후 1989년의 내삼문 신축을 비롯한 명륜당 복원 및 동재 이 건(1990년)<sup>30</sup>·서재 복원(1992년)<sup>31</sup>·고직사 이 건(1994년)<sup>32</sup>·화장실 개축(1997년)이 이루어져 일신 되었다. 지금의 배치형식은 외삼문·명륜당·내삼문·대성전이 남북 일축선상에 놓여 있고 명륜당 뒤편 좌·우에는 동·서재가, 대성전 앞쪽 좌·우에는 동·서무가 자리 잡은 前學後廟의 前堂後齋形이다. 고직사는 동재 뒤편에 있으며, 화장실이 명륜당 앞쪽 우측에 배치되어 있다. 한편 4단계에서 살펴 볼 수 있었던 蓮堂이 5단계 초기까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자취를 감추었는지 이를 알 수 없다.

상주향교의 전체적인 배치형식은 前學後廟로 경사지형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향교의 규범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강학공간의 前堂後齋形은 앞의 4단계에서 살펴 보았듯이 원래 전재후당 형이었던 것이 임란 때 남루가 소실되어 그 자리에 무화한 명륜당을 건립함에 따라 바뀐 형식이다. 임란 전의 전재후당형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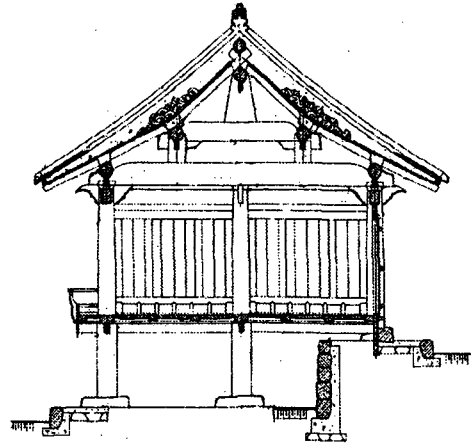


그림 10. 명륜당 단면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바뀐 전당후재형을 보기 드문 형이다.<sup>33</sup> 현재 대구·경북 지역의 향교(43개소) 중에서 상주향교 이외 전당후재형을 취한 곳이 4개소<sup>34</sup>이며, 무화한 명륜당이 있는 곳이 3개소<sup>35</sup>이다. 전당후재형의 4개소 중 문경·함창과 樓化한 명륜당의 3개소 중 함창과 김산은 옛 상주목의 屬縣이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 중에서 상주 지역의 또 다른 특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우리나라 향교들 중에서 영남(전재후당형)과 호남(전당후재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지역성에 대한 원인을 선행연구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都龍昊<sup>36</sup>는 主理派와 主氣派의 사상적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즉 主理派 학자들에 의해 건립된 서원 및 향교는 강당 前面에 兩齋를

30) 1951년 향교 우측 담장 밖으로 이 건된 동재가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다시 옮기지 않고 그 건축형식에 맞추어 새로이 지었다.

31) 서재 자리는 1955년 향교내로 이 건된 태평루가 있던 곳으로 복원 이전해인 1991년 12월에 태평루를 만산동 임란부 천전적지로 다시 옮겼다.

32) 고직사는 태평루를 옮기고 복원한 서재 좌측에 있었음.

33) 前堂後齋形은 이 호남지역에, 루가 건립된 前齋後堂形은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뚜렷한 지역성을 보이고 있다. (조영화, 앞논문, p.103.)

34) 함창, 문경, 하양, 진보향교가 이에 속함.

35) 함창, 김산, 울진향교가 이에 속함.

36) 都龍昊, 韓國教育建築空間 構成因子의 二元的 相補性에 關한 研究, 청주대 산업과학연구 제7권, 1989, p.14.

배치한 前庭형식으로 先賢에 대한 존경심을 정신적인 의미에서 강조한 반면, 主氣派 학자들은 강당 후면에 兩齋를 둔 後庭형식으로 근접된 공간 내에서 선현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현실주위적인 측면을 강조한 공간구성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i) 李廷國<sup>37)</sup>은 이러한 요인을 사상적·종교적 차원에 두고 세부적으로는 性理學의 보급차이와 理氣二元論(嶺南學派)과 理氣一元論(畿湖學派)에 두었다. 즉 호남지역에서는 巫俗의 영향으로 성리학의 보급과 전파가 영남지역에 비해 성숙하지 못했고 그 결과 수평적 윤리성과 종교성의 영향으로 非禮의인 '前堂後齋型'이 나타났다고 보았고, 반면에 영남지방에서는 수직적 윤리성을 특히 강조하는 탈종교화된 성리학의 보급이 확대되어 유교 윤리가 심화된 사회 문화적 배경과 嶺南學派의 理氣二元論의 사상적 배경으로 인해 禮의인 '前齋後堂型'이 정착되었다고 보았다.

iii) 그러나 金奉烈<sup>38)</sup>과 金知民<sup>39)</sup>은 향교 건립의 주체가 士林派가 아니라 官學派였다는 점을 들어 위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특히 金知民은 嶺南 士林派에 의한 私學의 발전은 16세기 이후이고 향교 배치는 15세기경에 어느 정도 완비를 보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이어 그는 그러한 지역적인 차이를 鄉村社會에 근거한 地域的인 建築特性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영·호남의 지역성을 명쾌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주 지역 주변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적인 특성을 지역성과 관련짓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된다. 지금으로서는 다만 雄州 巨牧이었던 상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호·충정 三道의 문화와 영남학과·기호학과·주사학과가 공존한 지역이라는 역사적·지리적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관심을 끌 뿐이다.

#### 4. 맺음말

大設位 향교인 상주향교의 배치형식을 건축연혁과 그 기록을 바탕으로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대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i) 어느 향교처럼 경관이 좋은 南山자락의 완경사지에 배산하여 南向으로 앉아있다. 현재 위치는 옛 읍성의 서편으로 5리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서쪽에 자리 잡은 것은 보기 드문 예로 이는 "左廟右社"의 배치 원리에 따라 서쪽에 놓인 社稷壇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ii) 1단계 배치형식(창건~1429년) : 대성전의 앞쪽 좌·우에 동·서재를 대칭으로 앉힌 묘학동궁 체제를 취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 주위에는 담장을 두르고 전면 담 중앙에 출입문을 내어 그 영역성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iii) 2단계 배치형식(1430년~?) : 1단계와 같은 배치형식으로 다만 전면에 있던 출입문을 없애고 그 자리에 南樓를 건립하여 그 위상을 한 차원 높였음이 다를 뿐이다. 이런 변화는 15C 당시 향교에 루가 가장 많이 건립되던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또 건축적으로 규모가 큰 루의 건립을 통해 당시 상주향교의 경제적 기반이 튼튼했음을 엿볼 수 있다.

iv) 3단계 배치형식(1486년~임란 전) : 2단계에 비해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기존의 남루를 향교의 맨 앞쪽으로, 동·서재를 남루 뒤편 좌·우로 옮겨지었다. 남루와 동·서재의 옛 자리에는 각기 내삼문과 동·서무를 새로 건립하였으며, 내삼문 바로 앞쪽 즉 옮긴 동·서재 뒤편에는 명륜당을 신축했다. 전체적인 배치구조는 남루·명륜당·내삼문·대성전을 일축선상에 배치한 前學後廟의 前齋後堂 형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559년 대설위로 승격될 때 그 제도 규범에 따라 대성전과 동·서무가 현재처럼 각기 5칸과 10칸 규모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v) 4단계(임란 후~1947년) : 임란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들을 중건한 이 시기의 배치형식은 3단계와 같은 前學後廟이나 강학공간이 前齋後堂에서 前堂後齋로 바뀐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소실된 남루와 명륜당을 복구하지 않고 남루가 있던 곳에 명륜당을 지금과 같은 반중층 누화 한 건물 형태로 바꾸어 앉힌 것으로 짐작된다. 또 이 때

37) 이정국, 조선시대 향교건축의 배치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 1992.

38) 金奉烈의 1인, 경남 향교의 구성형식과 건축적 성격, 건축학회 논문집 91.6, p.47.

39) 김지민, 앞논문, p.134.

원래 5칸이던 동·서재를 3칸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여지며, 19세기 후반에는 양사재의 존재가 나타난다. 이는 16C 말엽부터 향교의 강학 기능이 쇠퇴해지면서 또 다른 교육기관이 나타나는 역사적 환경을 읽게 하는 좋은 예라 하겠다. 이 시기에 처음 언급된 蓮堂은 창설과 사라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의 명륜당 좌측에 위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국의 현존 향교 중에서 연당을 향교 내에 마련하고 있는 곳은 3개소뿐으로 주목된다.

vi) 5단계(1948년~현재) : 이 시기에는 근대 학교 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일부 건물의 개조가 있었으며, 6.25 동란으로 또 다시 건물들이 소실되거나 일부 훼손되었다. 이런 수난의 과정에서 전란으로 소실된 서재를 복원하지 않고 또 동재를 담장 밖으로 이진 하는 등 강학 공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근년의 연차적 복구 사업에 의해 4단계와 같은 前學後廟의 前堂後齋 형식으로 그 면모를 일신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주향교의 배치형식은 초기 제향과 강학의 기능이 함께한 廟學同宮이었던 것이 前學後廟의 前齋後堂形으로 바뀐 후 강학공간만 前堂後齋形으로 변모하는 대체적인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前堂後齋는 영남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배치형식이며, 또 樓化한 명륜당은 전국적으로 그 예가 많지 않다. 이런 희소가치를 지닌 상주향교는 영남지역 중에서 상주지역의 또 다른 지역성을 읽게 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참고문헌>

- 1.金子相 譯, 『商山誌』, 대남인쇄소, 1984.
2. 尙州大 尙州文化研究所, 『尙州·咸昌 牧民官』, 한신문화인쇄사, 1997.
3. 尙州市·郡, 『尙州誌』, 구일인쇄사, 1989.
4. 尙州文化院, 『尙州史料集』, 보문사, 1998.
5. 尙州市·尙州産業大學校附設 尙州文化研究所, 『古代沙伐國 關聯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 書』, 한신문화인쇄사, 1996.
6. 尙州市·尙州大學校尙州文化研究所, 『尙州의 文化財』, 한일사, 2001.
7. 尙州文化院, 『尙州文化遺蹟』, 제일인쇄사, 1997.
8.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8)』, 지엠커뮤니케이션, 1999.
9.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 『대구·경북의 건축』, 문호당, 1999.
10. 경상북도·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경상북도 문화재대관(2)』, 경상북도, 1999.
11.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慶北鄉校誌』, 삼광출판사, 1991.
12. 姜大敏, 『韓國의 鄉校研究』, 경성대 출판부, 1992.
13. 趙泳鉢, 鄉校建築의 樓에 관한 研究, 영남대 박논, 1995.
14. 金知民, 鄉校建築의 造營規範에 관한 研究, 단국대 박논, 1992.
15. 尹熙勉, 『朝鮮後期鄉校研究』, 일조각, 1990.
16. 박왕희, 『韓國의 鄉校建築』, 문화재관리국, 1998.
17. 高明士, 『韓國 教育史 研究』, 대명출판사, 1995.
18. 金知民, 『韓國의 儒敎建築』, 도서출판 발언, 1993.
19. 趙康熙, 朝鮮時代 尙州鄉校의 社會 經濟의 基盤, 상주문화연구 제2집, 1992.
20. 慶尙北道, 『慶北北部 儒敎文化 觀光資源 調査研究』, 慶尙北道, 2000.
21. 김봉렬, 『앞과 삶의 공간』, 도서출판 발언, 1999.
2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삼화인쇄주식회사, 1991.
23. 조영화, 조선후기 양사재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2000. 1
24. 박찬수, 고려시대의 향교, 고려대 석사, 1982.

# A Study on the Transitions in the Site Plan of Sangju Confucian School

Chung, Myung-sup

(Associate Professor, Sangju National University, PhD Engineering)

Cho, Young-wha

(Associate Professor, Taekyeung College, PhD Engineering)

## Abstract

From the results of an examination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site plan divided into 5 stages based on literature and materials relating to the Sangju Confucian School as well as the construction history, we can see the general transition flow as follows.

The arrangement form of Sangju Confucian School shows the structures with both the sacrificial rites function and the learning function in the early period. This shows a large general flow where the form with the learning function structure at the front and sacrificial rites function structure at the back changed to a form where the learning function structure was positioned behind the boarding facilities, after which there was a transformation which left only the learning function (the form where the learning function structure was positioned in front of the boarding facilities).

The type where the learning function structure is positioned in front of the boarding facilities is hard to find in the Yeongnam area, also, there are not many examples of the 2 story Myeonglyundang (hall of confucianism teachings) throughout the country. Sangju Confucian School which possess the value of rarity is appraised as being a precious material showing another area characteristic in Sangju of the Yeongnam area.

Also, during the late Chosun period the scale of the Dongseojae (boarding facility) was reduced and the appearance of Yangsajae can be said to be a typical example of confucian school constructions of late Chosun era.

---

Keywords : Sangju, Confucian School, site plan, transition process, Daesungjeon, 2 story Myeonglyundang, Type of Jeon-Dang-Hu-Jae

---